

해외에너지 정책동향



파키스탄, 전구 관련 CDM사업 추진

●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 최대의 CDM사업이 될 전구교체 사업을 승인함.

- 파키스탄 정부는 영국에 기반을 둔 Coactive CO₂가 추진 중인 60백만 개의 고효율 전구 도입사업에 대하여 승인함.
- 본 사업을 통해 배출권 4백만 CER이 생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Coactive CO₂가 밝힘.
- 현재까지 4건의 전구교체사업이 UN에 등록되었으며 본 사업은 기존의 전구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3~5배 높은 소형 전구식 램프(Compact Florescent Lamp, CFL)로 교체하는 사업임.
- 파키스탄은 현재 총 10건의 사업을 UN에 등록하였으나 이는 교토 의정서 상의 CDM사업 분야에 적극적인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실적임.

(Point Carbon, 2010.9.24)

EU,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전력수립 지원

● EU는 아제르바이잔에 총 14백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 1차 지원금인 3백만 유로가 이미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제공되었음.
-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산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2차 및 3차에 걸쳐 자금이 제공될 예정임.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모든 에너지 자원의 공급, 수송과 관련된 일관되고 통합된 에너지 전력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본 자금은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기존의 에너지 전략을 개선하고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될 것임.

- 또한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효율사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사용될 것임.

(New Europe, 2010.9.27)

브라질, 룰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견지 예상

● 브라질 기후변화대응 정책 전문가들은 10월 3일 총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8년 만에 물러나는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대해 어떠한 퇴보도 없이 고수될 것이라고 전망함. 환경의제는 모든 후보들에게 최우선순위로 들만큼 중요한 사안임.

- '09년에 룰라 대통령은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배출 전망치) 대비 36.1%~38.9%를 감축시키는 목표를 설정한 국가 기후변화법에 서명하였음.
- 룰라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딜마 호우세피 후보가 10월 3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는데 실패하였지만, 10월 31일 결선투표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집권 노동당의 호우세피 후보는 룰라의 엄격한 기후변화대응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결선 투표에서 대결할 상대 후보인 사회민주당(PSDB)의 세하 역시 기후변화대응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상파울로 주지사였던 세하는 '09년 11월,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20%감축 목표를 세운 8법안에 서명하였음.

● 브라질 은행 Banco Santander and Banco Real의 전 탄소시장 전문가 Maurik jehee는 브라질 배출권 거래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함.

- 브라질 정부는 탄소시장 참여자에게 룰라의 기후법에 대한 연속성 및 확실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일본 기업, 정부 기후변화 정책에 반대

● 일본 재계는 정부가 기후변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다.

- 일본 정부는 10월 8일 열린 정례 각료회의에서 기존의 온난화 방지 대책을 위한 기본 법안을 개회중인 임시 의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함.

- 이에 대해 8개의 주요 산업 대표단은 정부의 결정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함.

- 대표단은 "온난화 방지 대책은 일본의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 없이 원안을 통과시키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함.

● 본 법안은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명시하고 있음.

- 일본 재계는 중기 목표치가 너무 높다고 우려함.

- 본 법안은 의무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의 기업들은 의무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Point Carbon, 2010.10.11)

중국, 세계 최대 에너지소비국

● IEA의 다나카 노부오 사무국장은 10월 12일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다고 밝힘.

- 다나카 사무국장은 업계 회의에서 IEA의 통계로는 중국이 최대의 에너지소비국이라고 지적함. 석유 수요 증가량의 절반은 중국이 차지하며 중국의 수요가 언제 둔화될지는 알수 없다고 언급함.

- 또한 이라크가 원유 확인 매장량을 25% 상향 조정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원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냄.

(Reuters, 2010.10.12)

중국, 신형 에너지 산업 개발 계획의 목표 세분화

●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신형 에너지 산업 계획의 개발 목표를 세분화할 방침임.

- 국가에너지국은 동 계획과 관련하여 '20년 목표는 수력발전 설비용량 380백만kW, 풍력발전 150백만kW, 원자력발전 70백만~80백만kW, 바이오매스발전 30백만kW, 태양광발전 20백만kW이라고 발표함.

-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 및 라이선스의 구입을 통해 풍력, 태양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전기자동차 기술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기술이 이미 중국에 제공되고 있으며 제3세대 원자력발전 기술의 자체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中國石化新聞, 2010.10.19)

영국, 녹색 버스 보급에 15백만 파운드 투자

● Norman Baker 영국 교통부 장관은 14개 버스회사들이 15백만 파운드의 자금으로 새로운 녹색 버스를 구매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10월 18일 발표함.

- 2차 녹색버스펀드(Green Bus Fund) 시행의 일환으로 영국 전역의 버스회사들은 170대 이상의 신규 하이브리드 및 전기버스를 구매할 예정임.

● 교통부 보고에 따르면 신규버스는 '12년 3월경에 운행될 예정이며 CO₂ 50천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됨.

- 저탄소 버스는 전통적인 버스보다 연료를 최소한 30% 덜 소비하고 CO₂를 약 33% 덜 배출하는데, 현재 실제 운행 중인 버스 중 저탄소 차량의 비율은 0.2%에 불과하다고 Baker 장관이 언급함.

● 지난 1차 녹색버스펀드의 시행을 통하여 24개 버스회사는 30백만 파운드의 자금으로 350대 가량의 버스를 구매했으며 이들 버스는 현재 옥스퍼드, 맨체스터 더럼에서 운행되고 있음.

(Energy Efficiency News, 2010.10.18)